최수만님을 추천드립니다

안녕하세요. 저는 ㈜블루팬넷의 대표이사 안찬수입니다

짧으나마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,

대표의 관점에서 저희 회사에 재직하였던 최수만님에 대해 말씀 다 싶기 때문입니다.

제 글이 최수만님을 평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2018년 최수만님이 저희 블루팬넷에 입사를 하였습니다.

CTO로부터 열의가 있고, 도움이 될 $\dashv \succ$ 얼 개발자라는 이야기를 디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

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됐이나,

월급을 준 사장의 입장에서 최수만님은,

면 마 메이 미하 기명 다하며 조직에 잘 융화된 월급이 아깝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

특히 제가 최수만님에게 감동했던 점은,

조직 (작은 회사의 비전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입니다만) 에 대한 깊은 애착감과

본인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.

개발자 특유의 성향대로, 표 연 아 다 것에 능숙하지 않으나 동료에 대한 배려가 뛰어나고

약속된 일은 해내는 마마 구성원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동료였습니다

저의 능력 부족으로 나 완급 서 이기 분들과 계속 함께 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

H 「아 매 최수만님에 대해 결론지어 말씀 $\dashv \succ$ 얼 섯 연

언제든 능력이 된다면 다시 모시고 싶은 분이라는 것입니다

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, 최수만님이 어떤 조직이라도 그 역할을 다하고 년 약 등 등 등 등 등 K누 스미 분이라는

